# 망상이라고 끊으려 애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놓고 들어가라

☞ 21면에서 계속

분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했죠. 어떤 사람이 마누라 넷을 두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놓은 부자인데 죽게 되니까 너무 원통하거든요. 첫 마누라한테 고했습니다. "내가 인제 죽게 되니까 마누라 당신, 나와 같이 갑시다." 하니까 "나는 당신하고 못 가오." 그러거든요. 둘째 마누라더러 또 "갑시다." 하니까 "나도 못 가오. 당신이 좋아했지 내가 당신을 좋아한 건 아니오. 당신이 나를 좋다고 쫓아다녔지 내가 좋아서 당신을 쫓아다닌 건 아니오." 하더랍니다. 당신하고는 영 못 가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셋째 마누라더러 가자고 했습니다. "내가 혼자 가기가 너무 쓸쓸하니 당신이 나와 같이 갑시다." 하니까 "나는 당신하고 같이 가되 묘지 앞에밖에는 못 가고 화장터 밖에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러니 또 쓸쓸해서 넷째 마누라더러 그랬습니다. "여보, 같이 갑시다." 하니까 "여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오?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당신과 나와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일초도 떨어지지 않고 이날까지 살았거늘 올 때도 같이 왔고 갈 때도 같이 가지 그게 무슨 소리오?" 하더랍니다.

그게 누굽니까, 넷이. 첫째 마누라는 내 몸뚱이를 말한 것입니다. 둘째 마누라는 재산을 말한 겁니다. 셋째 마누라는 자식과 부인을 말했죠? 가족입니다. 넷째 마누라는 바로 자기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그거를 비유할 때 첫째 마누라, 그 자기 몸도 같이 가지 못한다 이거죠. 몸도 다 내버리고 갈 거예요. 여러분이 쓰다듬고 멋 내고 머리 빗고 목욕하고 바르고 이러던 이 몸뚱이도 같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둘째, 돈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병까지 들면서 쫓아다녀도, 돈이 말을 하기를 그랬거든요. "당신이 좋아서 쫓아다닌 거지 내가 좋아서 당신을 쫓아다닌 게 아닌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쫓아가겠소?" 가족들도 보세요. 가족들을 아무리 애지중지하고 기르고 내가 쓴 것을 먹고 단 거를 주고 내가 굶더라도 또 자식을 먹이고 이렇게 길렀는데도 데리고 갈 수 없어요. 같이 가 주지 못해요.

어저께 그랬죠? 살아서도 다섯 가지를 대신 못 해 준다고. 아무리 부모 자식 하더라도 대신 못 해 준다고. 또는 부부가 아무리 사랑한대도 대신 못 해 준다고. 그렇듯이 그 가족이 화장터나 묘지나 거기밖에는 못 가 준다는 거죠. 그것도 인연에 따라서 한데 합쳐서 짚단 모아서 이렇게 매 놓듯이 비가 오고 천둥이 몰아쳐도 서로 쓰러지지 말고 살자고 인연을 맺은 것이 바로 가족이죠. 그래, 그 가족도 쫓아갈 수 없으니, 바로 자기 주인공만이 이 세상을 같이 살고 자기를 형성시킨 장본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못나게 했든지 잘나게 했든지 자기 작품을 그려서 바로 자기 모습을 턱 형성시켜 놓고 자기가 그 속에 들어서 왈가왈부하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몸뚱이가 없으면 무효고, 분별이 없으면 목석이고, 생명이 없으면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 또 무효죠. 그렇듯이 변소에 가도 같이 갈 수 있고 아파도 같이 아플 수 있고 또는 웃어도 같이 웃을 수 있고 사랑을 해도 언제나 일분일초도 떠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주인공밖엔 없는 것이죠, 늙으나 젊으나. 그냥 고독해도 같이 사랑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구경을 가도 같이 구경하고 올 수 있고, 똥을 누어도 같이 똥을 누고요. 허허허. 참 그런 사랑이라면 능히 할 수 있는 거죠.

한 철 살고 헤어질 거라면 그거 뭐 하러 한 철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중들은요, 한 철 살 수 있는 인연들을 맺지 않으려고 다 버리고 이렇게 머리 깎고, 모두가 내가 되고 남이 하나도 없듯이 모든 걸 버리고 입산을 해서 모든 걸 얻어 가지고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그 자체를, 그 능력을 중용을 해서 보이지 않는데 중생들이나 보이는 데 중생들이나 다 같이 한마음으로 건질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연비를 하면서도 자성본래불, 여기 이렇게 (등 뒤 액자를 가리키시며) 돼 있죠? 이거 잘 보세요. 그래서 옛날부터도 그랬지만 나 역시 이렇게 말하고 싶군요. 여러분한테 오늘 이렇게 오계를 설하면서 아주 진실하게 또는 거짓 없이, 저 애들이 지금 연비를 했는데 아주 돌아서서 중병을 앓지 않을 거라는 거, 이것만 해도 고마운 걸 말로 할 수 없는데 앞으로 그 인연으로 인해서 죽어도 문이, 천당 문이 훨쩍 열린다 이 소립니다. 청와대 들어갈 때 그냥, 그저 (가슴을 짚으시며) 여기 마크 하나 붙였으니까 인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거야, 그냥. 문 닫고 들어오지 말라 이런 소리가 없거든. 그와 같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오계 받은 게 얼마나 중요하고 진실하고 참된 것인지 아실 겁니다. 삼계에 두루 하니 두루 하는 그 모습들이여. 영가들이여. 그 생명 그 자체가 영가들이 따로 없고 현재 생명들이 따로 없는 바로 도심으로서 여여하고, 생활이 실상이니 우리 한마음으로 뭉쳐 그 도리를 알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이, 여러분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일거리가 있으면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것을 다 한마음에다 놓고 '거기서 밖에 해결할 수 없다' 하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사신다면 바로 우리 일상생활이 참선이요, 또 어저께가 없고 내일이 없는, 오늘의 앞뒤가 다 걸림 없이 뚫린 퉁소와 같이, 앞뒤 뚫린 대나무 퉁소와 같이,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산다면 그것이 참선이요, 망상이라고 많이 끄달리고 모두 끊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 망상이 바로 부처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끊지 않고 그대로 거기 놓고 들어가는 것이 열반의 참선이라. 열반의 길로 그냥 들어가는 코스라.

우리 마음은 체가 없어서 은산철벽도 없는 것이고 사방이 막힘도 없고 지붕도 막힘이 없고 모두가 뚫렸어. 사방이 툭 터졌으니 내 갈 길에 걸림이 있으며 내 가는 길에 막힘이 있으랴. 내 마음먹는 대로 내 마음은 거침없이 지구 바깥을 벗어나고 어느 혹성이라도 어느 풀풀 끓는 물 속에라도….

여러분! "물이 깊어서 나는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어도 그냥 그 의식이 남아 있어서, 이런 공부를 안 하면 그냥 남아 있어 가지곤 '아이고, 저 물에 빠져 죽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못 건너가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죠? 부처님께서도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하죠? 강을 건너는 데도 내가 마음이 체가 없어서 한순간에 빛보다 더 빨리 건너갈 건데도 불구하고 살아생전에 그 의식과 그 참된 마음을 몰라서 그냥 그 의식대로 저 물에 빠져서 죽을까 봐 건너가질 못하는 거죠. 그 의식으로 사니까.

그리고 또 불 소용돌이가 있으면 건너가질 못해요. 그 속에 들어가질 못해. 왜냐하면 그 불 소용돌이가 있으니까 뜨거워서 거기 타 죽을까 봐 못 들어가거든. 그러니 부처님 세계를 맛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곳을 그렇게 건너가지 못한다면 죽어선들 건너가리까? 그뿐입니까? 은산철벽이 막혀 있으면 그게 높고 두꺼워서 뚫질 못해서 못 간다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그렇게 넘어가지 못하죠. 귀신들이 윽시글득시글하고 독사가 윽시글득시글한데 잡아먹힐까 봐 또 못 갑니다. 허허허. 그러니 그것만 보더라도 네 군데를 다 그냥 못 건너가죠? 살아서 그렇게 못 건너가죠? 청와대도 그렇게 못 들어가게 해서 못 들어가죠. 그게 의식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마음에 체가 없는데 뭐 때문에 강을 못 건너가느냐. 불을 못 지나가느냐. 독사가 있는 데를 왜 못 가느냐. 은산철벽을 왜 못 가느냐.'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난 여러분한테 연습시키는 거예요. 죽어도 거기에 걸리지 않게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진실하게 걸어가는 이 참사람의 참뜻을 여러분은 아셔야 하고 자유인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를 아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넉넉하고 지혜 있고 다 물리가 터져서, 마음으로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헤매다가도 그 감옥을 그냥 툭 쳐 버리고 한 찰나에 나서는 그런 당당한 여러분이 되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연비를 하고 이렇게 오계를 여러분한테 설했는데 오늘 그렇게 연비를 하고 오계를 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업이 많아서 두꺼우면 물리가 터지질 않아. 아둔해. 아둔해서 철겹이 됐어. 그러니 그것이 얼른 뚫어지기가 쉬우랴 이겁니다. '그 철겹을 한 그 업이 이 공부를 계속해 나가다 보면 어느 때인가는 그냥 뚫려서 그냥 통과 통과 하게끔 할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연비 받는 분들에게 그냥 그렇게 내린 겁니다. 언젠가는 가볍게 터질 겁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뭉쳐서 돌아갈 때는…. 여러분, 옛날에 유교에서도 이런 말을 했죠. 막대기를 한 줌 해 오라고 그랬습니다. 막대기를 같이 한 줌을 쥐고 꺾어 보니까 안 꺾어지거든요. 회초리 하나를 가지고 꺾는 데는 금방 꺾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두루 하는 마음으로, 포괄적인 마음으로 한마음이 된다면 절대로 누가 꺾고 들어올 수가 없는 집입니다. 그러니 자기 개별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허, 내 주인공 찾으랬으니까 나 하나….' 요것만 생각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왜냐? 포괄적인 전체 우주 삼라대천세계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에 있으며 태양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니라. 이 세상의 대지, 산하대지의 근본도 바로 마음의 근본이니라. 이 뜻을 여러분이 왜 배웠습니까? 이거를 알면서도 실천을 못 하는 거야 어쩌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밝게 켜는 그 장본인의 자가발전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지 딴 데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의 주인은 여러분이고, 또 그 지구는 우리의 집입니다. 그 집과 주인과 둘이 아닌 까닭에 지구에서도 대기권이 있고, 나쁜 거는 레이더망이 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개발되어 알게 되고, 천문학으로써 그걸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인간에게도, 이 허공에 오고 가는 그 길에도 그저 모습 없는 모습, 생명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세계에 그 많은 내 생명들, 내 모습, 내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저항력을 가지고서 밀 건 밀고 당길 건 당기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정리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죠. 자력이 있기 때문에 이 발바닥이 이 땅에 붙고요. 붙어서 걸어 다닐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가지의 그 재료는, 어저께도 얘기했죠?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우리한테는 그것이 적게 쓰이든지 많이 쓰이든지 그게 재료라고요. 그 네 가지를 끌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그 자력의 재료를 그냥 여기 모두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두서없이 말은 했지만 여러분이 살림살이도 두서없이, 체계 없이 체계를 세우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실상이며 살림살입니다. 금방 가만히 앉았다가도 금방 얘기를 듣고선 뛰어나가야 하는 이런 그 체계 없는 살림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연하게 체계가 서 있는 이 살림살이. 그래서 도둑이 말입니다, 지키는 사람, 물건 가지고 싣고 가는 사람, 훔치는 사람 이게 다 도둑놈으로 몰려 가지곤 전부 붙잡혀 가더군요. 그러니 계 준 사람이나 계 받은 사람이나, 허허허, 그 뜻을 바로 설하는 그 법설! 그것이 한데 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장땡입니다. 그러나 학설로 이론적으로 방편으로만 하는 이 오계 설법은 한데로 떨어져서 땅에 떨어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공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북하면 달마 대사가 양 무제더러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해 놓고는 그냥 약사발을 받았겠습니까.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0년 12월 9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계를 설한 것을**
**나는 주는 사이 없이 주었으니 여러분도 받는 사이 없이 받아서**
**오직 뜻으로 간직하면서 그것을 허탈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